



일회용 플라스틱, 어떻게 줄일 것인가?



홍수열 소장
자원순환사회연구소

1. 플라스틱,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플라스틱은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꿈의 물질’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류의 악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나 익숙한 소비문화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풍요와 낭비의 시대에 살고 있다.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까지 4억7백만 톤으로 65년 동안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백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 추세대로 플라스틱을 생산할 경우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15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부피기준으로 1989년부터 철강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제국의 영토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유럽을 전체로 봤을 경우) 혹은 3위(국가별로 세분했을 때 1위가 벨기에, 한국이 3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 통계는 플라스틱 원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제품

을 생산한 후 상당량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만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소비량이 1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국가별 1인당 플라스틱 최종제품 소비량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몇 위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 국가들의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우 많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소비량 증가를 이끄는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컵뿐만 아니라 페트병과 같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포장재도 포함된다. 비닐 사용량만 보면 일회용 비닐봉투 보다는 비닐포장재 사용량이 훨씬 많고 증가추세도 가파르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

2. 일회용 플라스틱, 어떻게 줄일 것인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작년 6월 EU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지침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침은 바다에 가장 많이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조사한 후 해당 품목별 특성에 맞게 사용금지, 생산자책임, 소비자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회용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일회용품은 사용금지 후

1 지침의 정확한 명칭은 “환경에 관한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지침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이며, 줄여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라고 한다.

은 무상제공 금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풍선, 면봉, 멀티슈, 담배꽂초 등 문제가 되고 있으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품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분	사용량 감축	사용 금지	구조 개선	재생원료 의무사용	표시	EPR	분리수거	대중인식 증진
음료용기 (뚜껑, 마개 포함)	◎		◎	◎		◎	◎	◎
식품용기	◎	◎				◎		◎
면봉 (의료용 제외)		◎						
커파리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						
접시		◎						
빨대		◎						
음료스틱		◎						
풍선막대 (산업용 제외)		◎						
음료컵		◎			◎	◎		◎
위생패드					◎			◎
탐폰 및 탐폰 어플리케이터					◎			◎
멀티슈					◎	◎		◎
필터담배					◎	◎		◎
풍선						◎		◎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연질 랩						◎		◎
비닐봉투						◎		◎
뉴스용품						◎		◎

- 1) 사용이 금지되는 식품용기와 음료컵은 EPS재질로 된 것만 해당되며, 산화생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모두 사용이 금지됨
- 2) 구조개선 대상이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3리터 이상 크기의 음료용기이며, 뚜껑과 마개가 용기의 본체와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함
- 3)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은 3리터 이상 크기의 음료용기임. PET병은 2025년 이후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모든 플라스틱 음료용기는 2030년 이후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
- 4)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및 잘못된 폐기물처리방법, 플라스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품 혹은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함
- 5) EPR 대상이 되는 음료용기는 3리터 이상만 해당되지만 다른 지침에 의해서 EP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3리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EPR이 적용됨. 멀티슈와 풍선, 필터담배의 경우에는 수집 및 청소비용 부담을 생산자가 해야 함. 즉 수집 후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재활용의무가 아니라 청소의 의무가 부여되며, 공공장소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음
- 6) 분리수거 대상은 3리터 이상 크기의 음료용기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까지 종량기준으로 77%, 2029년까지 90% 이상이 재활용목적으로 분리수거 되어야 함. 다른 지침에 의해서 EPR대상이 되는 용기는 3리터 미만의 경우에도 재활용목표율이 적용됨. EU 포장재 지침에 의하면 플라스틱 포장재는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의 재활용목표율이 설정되어 있음
- 7) 대중인식 증진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폐기물의 분리배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재사용 등의 대안적 방법의 활성화, 해양투기, 번기배출 등의 잘못된 분리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함

우리나라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슈퍼마켓(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이상의 매장부터는 사용금지, 이하는 무상제공 금지,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매장 내에서는 사용금지,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에는 사용허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보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종이컵도 규제대상에 추가하고,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도입, 배달용기 중 일회용 수저에 대한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기 대체를 위한 시범사업 등 일회용품 규제 강화 조치계획을 작년 연말에 발표하였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함께 자유포장대에서 테이프 및 끈 제공을 중단하였다.

일련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주범은 포장재인데 포장재는 건드리지 못하고 중범인 일회용품만 건드린다는 지적, 소비자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는 탁상행정을 한다는 지적,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죽인다는 지적, 다회용기 사용으로 위생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모두 경청해야 한다. 환경부도 차근차근 충분한 준비와 설득을 병행하면서 규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자유포장대에서 테이프를 없애는 정책은 환경부가 고민한 테이프 남용의 문제보다는 소비자 불편이라는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본래의 문제의식이 묻혀 버렸다. 앞으로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충분히 한 후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 및 설득논리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우선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 즉 대안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는 당장 접근하고, 기술개발 및 대안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포장재는 대안마련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일회용품은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가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박스 테이프와 같이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모이다 보면 양이 많아진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남용되는 것이 있다면 줄여나가야 한다. 아르바이트생 노동강도 강화 및 인건비 상승, 위생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회용기 전문세척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도 있다.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서 다회용기 사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